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

퀸즈 룰아일랜드시티에서 1971년에 설립된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는 뉴욕시립대학교(CUNY)를 구성하는 7개의 커뮤니티 칼리지 가운데 하나이다. 라과디아의 8개 학과는 50개가 넘는 준학사 학위 및 수료(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전공 분야로는 보건과학,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경영 및 기술, 교양학 등이 있다. 라과디아는 25개 대학으로 이루어진 CUNY 시스템에서 STEM 졸업생을 배출하는 규모 면에서 세 번째로 큰 대학이다. 학생들은 졸업 후 대부분 CUNY 소속 4년제 대학 등 상급 대학으로 편입하여 학사 학위를 마무리한다. 간호학, 뉴미디어 테크놀로지, 수의기술 등 실무 중심 전공 프로그램 졸업생들은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출한다.

2019년 라과디아는 대학 진학 준비(프리칼리지) 과정, 준학사 학위 과정, 평생·계속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교육했다. 퀸즈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듯, 라과디아 학생의 56%는 미국 외 국가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전 세계 국가의 81%에 해당하는 158개국에서 왔다. 학생의 절반이 조금 넘는 54%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1세대 대학생이다. 69%는 퀸즈에 거주하며, 나머지는 브루클린 등 다른 지역에서 통학한다. 학생의 약 절반(48%)은 부모와 별도로 독립하여 살고 있다. 라과디아 학생의 거의 전원이 인종·민족 소수자(88%)이며, 58%는 여성, 31%는 25세 이상 성인 학습자이다. 라과디아 학생의 48%는 히스패닉으로, 미 교육부가 히스패닉 지원 대학(Hispanic-Serving Institution, HSI)으로 지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준치인 25%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라과디아 학생의 66%는 어떤 형태로든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모와 떨어져 독립 생활을 하는 학생의 70% 이상은 연 수입이 2만5천 달러 미만이다. 라과디아 학생의 약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6%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시간제)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한 학기 등록금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2,400달러이다.

라과디아에 처음 입학한 풀타임 신입생의 졸업률은 2012년 20%에서 2017년 32%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22%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재학 유지율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라과디아는 스탠퍼드대학교(2017)와 브루킹스연구소(2020)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중산층 이상으로 이동시키는 '경제적 계층 이동성' 측면에서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가운데 5위에 올랐다. 라과디아는 또한 뉴욕시 경제에서 수요가 높은 헬스케어, IT, 건설 등 분야에서 퀸즈 주민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돋는 직업훈련·경력개발 프로그램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산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라과디아의 성인·계속교육(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ACE) 부서는 실습 중심 직업훈련, 직장에서 필요한 핵심 '라이프' 스킬, 취업 알선,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라과디아 학위에 인정되는 학점도 받을 수 있다. ACE 산하의 소기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설치된 최초의 '골드만삭스 10,000 Small Businesses'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수천 개의 소규모 비즈니스에 교육과 전문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고용주와 협력해 인재 공급망을 구축하며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한국의 전문대학과 비슷하면서도,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뉴욕시의 한인 사회는 자영업, 장시간 노동, 자녀교육 부담 등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4년제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훨씬 저렴하고, 연방·주 재정지원도 비교적 잘 받을 수 있어,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특히 거주지가 퀸즈, 브루클린, 맨해튼인 경우 통학이 비교적 편리하고,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성인도 저녁·주말·온라인 강좌를 통해 유연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는 영어가 완벽하지 않거나, 고등학교 성적·시험 점수 때문에 바로 명문 4년제에 진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ESL(영어) 수업, 투터링, 글쓰기 센터, 카운슬링 같은 지원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어, 이민 1세·1.5세, 유학생, 직장인 모두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년 동안 기초 교양과 전공 기초 과목을 듣고 성적을 올린 뒤, CUNY·SUNY나 사립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면, 결과적으로는 4년제 학사 학위를 더 낮은 비용과 부담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사회에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네일·미용, 식당, 델리 등에서 일하시다가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간호, 의료 보조, IT, 회계, 그래픽·뉴미디어, 건설 관련 프로그램 등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자격증과 실무 능력을 갖추어 병원·사무직·IT 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자녀 세대에게는 "4년제 못 가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미국식 교육 시스템 안에서 전략적으로 경력과 학위를 쌓을 수 있는 첫 단계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어 사용자라면, 커뮤니티 칼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학업·커리어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